就任辭

서 성 배
(사)한국계육협회장

존경하는 회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

기본적으로, 저는 그 동안의 공직생활 근무 및 공기업 경영 참여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계육산업이 당면한 과제해결과 회원사간 유대강화, 관련업계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주지하시다시피, 우리 계육산업은 80년대 초 국내에 육계 계열화 사업이 도입된 이후 많은 굴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, 최근 들어 수급불균형 등으로 닭고기 가격이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또한 '한 · 미 FTA' 타결 등 개방화 확대가 더욱 가시화되면서 우리 업계의 시름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.

난제가 산적해있는 시점에 중책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, "위기는 새로운 기회다!"라는 신념을 가지고, 하나하나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.

기존의 제도나 시책에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도 찾아내고, 눈을 사방으로 돌려가면서 새로이 할 일과 해결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.

이러한 과정에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양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. 회원님들께서도 협회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그럼, 회원님들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